

볼 나르기용으로 전략한 국내선수들?

외국인 몰아주기가 불편한 삼성

바스켓볼 브레이크

공격패턴 중 70% 이상 라틀리프 몰빵농구
국내선수 경기력 하락...단기전 변화 필요

프로농구에서 외국인선수들의 활약 여부는 팀 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감독들은 외국인선수 중심으로 전략을 짠다. 올 시즌에는 삼성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은 리카르도 라틀리프(28·199cm), 마이클 크레이크(26·188cm)를 주축으로 시즌 초반부터 줄곧 선두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삼성 국내선수들의 역할은 볼 나르기?

문제는 외국인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 국내선수들의 활용도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데 있다. 1라운드 삼성의 기세는 좋았다. 9경기에서 7승2패를 기록했다. 외국인선수들과 국내선수들이 가장 조화를 이뤘던 시기다. 포인트가드 김태술(33)이 빈틈이 없는 패스와 안정적인 경기 조율로 팀을 진두지휘한 가운데 김준일(25), 임동섭(26), 이관희(29) 등 국내선수들의 득점 분포도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 2라운드(7승2패)에는 2~3쿼터에 출전하는 크레이크의 볼 소유 빈도가 급격히 올라갔지만, 상대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내선수들의 활용도가 또 떨어졌음에도 꼬박꼬박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3라운드부터는 2~3쿼터를 라틀리프와 크레이크의 돌이서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선수들의 역할은 라틀리프와 크레이크에게 불을 공급하는 것이 전부다. 김태술, 주희정(40)이라는 국내 최고의 2대2 플레이어들도 보유했지만, 이들을 활용한 2대2 옵션은 전무하다. 라틀리프는 이들에게 스크린조차 하지 않는다. 크레이크가 볼을 잡았을 때만 스크린을 한다.

승부처인 4쿼터에는 크레이크가 출전하지 않는다. 삼성이 공격을 10차례 시도하면, 라틀리프가 8~9번을 담당한다. 실제로 삼성의 공격패턴 중 70% 이상이 라틀리프를 위한 것이다. 이제 상대팀은 라틀리프에 대한 합점수비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서 경기에 임한다. 볼 나르기에만 익숙해진 국내선수들의 경기 밸런스는 완전히 깨졌다. 삼성은 라틀리프가 상대의 합점수비까지 뚫고 득점해줄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패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은 3라운드 6승3패, 4라운드 5승4패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라운드 6경기에서 3승3패에 그치고 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삼성의 기둥이다. 그러나 삼성의 지나친 '외국인선수 몰아주기'로 인해 국내선수들의 경기력은 또 떨어졌다.

●외국인선수 몰아주기, 단기전에선 안 통한다!

외국인선수 몰아주기가 정규리그에선 통할지 몰라도 단기전에선 어렵다. 지난 시즌 KCC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 실패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KCC는 안드레 에미트(35) 몰아주기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상대의 수비전략이 총동원되는 챔피언 결정전에선 오리로에 맥없이 무

너지고 말았다. 예뻐만 바라보는 농구에 익숙해진 국내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까닭에 오리로의 수비 변화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정규리그에서 이미 경기력을 상실한 국내선수들이 갑자기 단기전에서 살아날 순 없다. 지난 시즌 KCC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변화가 필요한 삼성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김선형 21점...SK, 6강PO 희망가

kt 잡고 7위 전자랜드 2경기차 추격



SK가 kt를 꺾고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 희망을 이

어갔다.

SK는 2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5라운드 kt와의 홈경기에서 81-71로 이겼다. SK(17승25패)는 7위 전자랜드(19승23패)에 2경기차, 6위 LG(19승22패)에 2.5경기차로 다가서며 6강 PO 진출 경쟁을 더 뜨겁게 달궜다.

이날 경기를 포함해 정규리그 종료까지 13경기를 남겨놓았던 SK에 6위 싸움 상대인 LG, 전자랜드와의 격차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최하위 kt를 맞아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PO 진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SK 문경은 감독은 "우리 팀에는 매 경기 가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SK 선수들에게도 승리는 간절했다. 이는 경기에서 잘 드러났다. 3쿼터까지 59-51로 앞선 SK는 4쿼터 중반 김영환을 앞세운 kt의 공세에 밀려 경기 흐름을 내줄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SK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SK는 71-66으로 쫓긴 경기 종료 2분11초 전 김선형(21점)이 상대의 공을 가로채 패스한 공을 최준용(7점·7리바운드·4어시스트)이 속공



SK 김선형(오른쪽)이 2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kt와의 홈경기 도중 김준용의 수비를 따돌리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철 | 뉴스

레이업 득점으로 연결한 덕분에 흐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테리코 화이트(18점), 최준용, 김선형이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를 차곡차곡 성공시켜 승리를 지켜냈다.

SK 간판 김선형은 21점·5리바운드·6어시스트·4스틸의 전천후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kt에선 리온 윌리엄스(20점·11리바운드), 김영환(15점·4리바운드), 이재도(14점·8어시스트) 등이 분전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삼성생명 대체외인 해리스 '살과의 전쟁'

지난 시즌 비해 늘어난 체중...감량 집중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를 확정된 삼성생명은 최근 외국인선수를 교체했다. 개막부터 줄곧 함께했던 나타샤 하워드(26·190cm)가 옆구리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함에 따라 지난 시즌 삼성생명에서 뛰었던 엠버 해리스(29·193cm)로의 교체가 불가피했다.

해리스는 2015~2016시즌 정규리그 25경기에서 출전해 평균 10.60점·6.2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규리그 막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팀을 떠났다. 삼성생명은 하워드의 대체선수로 여러 명을 검토하다 지난 시즌 임근배(50) 감독과 함께해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리스를 최종 선택했다.

해리스는 17일 입국해 선수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21일에는 비자도 발급 받았다. 출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부상 부위도 완벽하게 치료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



엠버 해리스

이 남았다. '살과의 전쟁'이다. 임 감독은 21일 "해리스가 몸무게가 많이 불어서 왔더라. 지난 시즌 팀과 함께할 때 97kg 정도를 유지했는데, 체중이 많이 늘었다. 몸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 감독이 구체적 수치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적잖게 감량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임 감독은 "정규리그 4경기가 남았다.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몸을 만드는 데 집중시킬 생각이다. 경기 출전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리스의 본격적인 출전은 3월로 예정된 2경기로 보고 있다. 그 중 한 경기는 6일 열리는 '우리는행진'이라며 "우리는행진의 경기 때까지는 해리스의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있을 것으로 본다. 해리스를 앞세워 제대로 불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배구

V리그 첫 4000득점 박철우 "내겐 개근상 같은 의미"

(삼성화재)

"득점 도와준 세터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5000점 육심...할 수 있는때까지 해볼 것"

삼성화재 박철우(32)가 V리그 최고의 선수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V리그에서 최고의 노력을 쌓아온 선수라는 데에는 이의를 달기 어려울 듯하다. 박철우는 18일 OK저축은행전에서 V리그 역대 최초로 4000득점을 돌파했다. 2005년 V리그 원년부터 쉼 없이 한길만 보고 달려온 끝에 얻은 성과다.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0일, 훈련 중 휴식시간에 인터뷰에 응한 박철우와 연락이 닿았다.

-4000득점이 V리그 1호 기록인데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다.(웃음)

"KOVO 기준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4000점은 전례가 없어 거기 해당하지 않아) 그런 듯하다."

-기록 달성 순간에 실감이 났나?

"전광판에 뜬 것을 보고 알았다. (경기 전 기사가 떠서) 4000점까지 몇 점 남았는지는 알고 들어왔다."

-첫 득점 순간 기억나나?

"(한참 기억을 더듬더니) 대한항공전이었던 것 같다. 스파이크로 점수를 낸 것 같다. 실업(2004년 V투어)에서 첫해를 보내고 2년차부터 V리그가 시작돼 (기록이) 카운트됐다. 그 당시(현대캐피탈)에는 주전이 아니었고, 후인선 선배님(현 한국전력 코치)이 뛰셨다. 계속 교체선수로 뛰다가 제대로 주전 뵈는 것은 2008~2009시즌부터였던 것 같다."



삼성화재 박철우는 18일 OK저축은행전에서 V리그 역대 최초의 4000득점 고지를 밟았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대기록의 주인공은 이를 개근상이라고 표현했다. 2005년 원년부터 쉼 없이 달려온 10년을 위한 대견함이 한껏 묻어났다. 스포츠동아DB

-어느새 4000점까지 왔다.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기도 할 텐데.

"시간이 쌓이다보니까 점수도 쌓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오래 프로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10년을 400득점씩 해야 나오는 기록이니까... 군대에도 가 있었지만, 그래도 '개근상처럼 꾸준히 V리그를 뛰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잘하는 것보다 오래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예전에 야구의 양준혁 선수가 '살아남으니까 강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오래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실감이 난다. (연차가 필수록) 뭘가 (끝이 보일수록) 현역 시절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문성민 3·4세트 10점...현대캐피탈 PO직행 눈앞

KB손보 잡고 '리버스스윙 충격패' 리벤지



현대캐피탈은 지난 17일 구미 KB손해보험전에서 충격의 리버스스윙 패배를 당했다. 절대강제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먼저 2세트를 따낸 뒤, 내리 3세트를 뺏긴 것이다. 2위 현대캐피탈(20일까지 승점 53)이 주춤거린 사이, 한국전력(승점 52) 우리카드(승점 51) 삼성화재(승점 48)가 추격전을 개시했다.

새 외국인선수 데니에게서도 확신을 얻지 못한 위기에서 현대캐피탈은 2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6라운드, KB손해보험을 다시 만났다. 이 고비에서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뜻밖에도 주전세터인 노재욱 대신 이승원, 수비형 레프트 박주형 대신 공격형에 가까운 송준호를 투입하는 의외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세터 이승원 체제에서 현대캐피탈은 1세트만 5점을 뺏아낸 강력한 서브에이프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주 공격수 문성민과의 호흡이 결함을 노출했다. 2세트까지 문성민의 공격성공률은 33% 수준이었고, 6득점에 머물렀다. 2세트를 뺏긴 뒤, 최 감독은 세터 노재욱을 넣고, 외국인선수 데니를 박주형으로 교체하며 다시 한번 변화를 줬다.

세트스코어 1-1에서 시작된 3세트, 여기서부터 현대캐피탈은 1세트와 달리 목표대로 잡았던 승점 3을 얻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여기서 현대캐피탈은 결집했고, 문성민의 3~4세트에서만 10점을 뺏아내며 공격성공률을 48.14%까지 끌어올렸다. 현대캐피탈 신영석~



현대캐피탈 문성민(오른쪽)이 2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블로커들을 피해 강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있다. 천안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최민호의 미들 블로커 라인인 11-7의 블로킹 자세를 끌어냈고, 서브에서도 KB손해보험 리시브 라인을 교란했다. 송준호도 12득점(공격성공률 60%)으로 데니를 대체하는 보조공격수의 책임을 다했다.

세트스코어 3-1(25-23 20-25 25-13 25-16)로 승리한 현대캐피탈은 리버스 스윙의 리벤지를 해냈다. 2016~2017시즌 KB손해보험을 상대로 5승1패라는 절대우세로 시즌을 마쳤다. 현대캐피탈은 승점 56(19승12패)에 꽤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을 키웠다. KB손해보험(12승19패 승점 38)은 세터 황택의가 3세트 이후 막히며 3연승에 실패했다.

천안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